

## V. 원불교 사회복지 방향

### 1. 원불교 사회복지이념

교단 100주년을 눈앞에 둔 이시점에서 원불교 사회복지사업의 실상은 어떠한지 살표보기로 한다.

요근래 몇년 사이에 원불교 사회복지사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시작의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관심과 노력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전개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본다.

소태산 대종사는 개교의 동기에서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고 하여 사회봉사의 의지를 밝히셨다.

원불교 교리 구조중 사회복지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 대표적인 곳이 지은보은, 정각정행, 불법활용, 무아봉공으로 된 사대강령과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송배로 평등사회 건설을 표방하고자 하는 사요이다. 즉, 사대강령이나 사요에 나타난 무아봉공, 보은봉공, 자타력병진의 이념이나 원리들은 원불교 교화의 이념인 동시에 사회복지 이념이기도 한 것이다.

무아봉공이란 자기자신을 희생하여 공익에 헌신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公은 私의 반대개념이고 이기주의를 벗어나 이타주의로 아나감을 말하며 또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보은봉공의 이념은 은혜의 실천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사온의 은혜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의 네가지 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 보은봉공의 원리에 의하면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큰 은혜의 우리 속에서 다같이 삶을 보전하고 사는 형제요 동포로서, 천지은에서는 옹용무념의 도를, 부모은에서는 무자력자 보호의 도를, 동포은에서는 자리아타의 도를, 법률은에서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를 실천하는 것이 지은보은의 원리이다.

자리아타의 원리는 나도 이롭게 타인도 이롭게 하자는 뜻으로 타인에게 의

되만 할것이 아니라 자력을 길러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정전 심고와 기도에 보면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고 하였고 최초법어중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에 보면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 이타 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 만고 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하였다. 이 원리에 의하면 사회복지 대상자를 스스로 자력이 생기도록 까지 복돋아 주고 챙겨 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하겠다

## 2. 원불교 복지시설 현황

종별 교구	정신요양 시설	노인시설	육아시설	부랑인 시설	영아시설	모자보호 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지체장애 시설	정박시설
서울			한국 보육원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대원관광 수양원							
마산									
목포									
영광									
청주									
남원		관촌 장수 수양원							
이리	삼정원	수양원 상록원 노인요양	이리 보육원	이리 자선원					

전주		전 주 양노원				원 광 모자원			
군산									
진주									
제주		원광 요 양원							
청주									
춘천									

위의 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원불교에서 운영한 사회사업시설 (종합복지회관을 제외한 수용시설만)은 모두 13개이다. 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용시설인 종합복지회관이 서울교구에 3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각각 1개씩, 그리고 전주, 이리, 군산교구에 모두 6개가있다. 또 수용시설 중 노인시설이 서울에 1개, 대전에 1개, 남원교구에 3개, 전주에 1개, 이리에 4개(유료요양원 포함)이며, 정신시설과 부랑인 시설이 이리에 각각 1개씩, 육아시설은 이리에 1개, 서울에 1개, 모자보호시설이 전주에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보면 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중앙충부가 있는 이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몇개 시설을 제외 하고는 모두가 설립기간이 짧은 신생시설들이다. 또 근래 몇 년 사이에 원불교 사회 사업이 국가적인 추세에 맞추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교구별로 보면 종합사회복지 회관이나 다른 수용시설이 전무한 곳이 많으며 전체적으로 볼때도 영아시설, 정박시설 지체장애시설 등 아직 손도 미치지 못한 미개척분야도 많음을 볼 수 있다.

### 3. 원불교 사회복지 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앞으로 원불교 사회복지의 방향은 첫째, 이리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히 전개 시켜

나가야 겠다.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교구자치제가 실행이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현재 전무 상태인 수용시설들을 개척해 나가야 겠다.

이 문제는 교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도들의 친인척, 또는 주위 인연이 있는 분들중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대상자들을 교단의 시설에서 포괄적으로 맡아 보호해 줌으로 해서 교화에 큰 활력소가 되리라 본다.

**세째**, 전문인력양성 문제와 프로그램 개발 문제이다.

요 몇년 사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의 수가 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또 이들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제대로 기능을 다 발휘하며 역량껏 뛰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다. 또 어렵게 연수를 마치고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전혀 뜻이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보이는데 이런 점은 참으로 아쉽다.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프로정신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중요 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해서 전문인력들에 의한 산뜻하고 독자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 되어져야겠다.

**네째**, 경영상의 문제다.

어느 시설이나 대개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수용시설의 경우 국가보조 80%와 재단보조 20%의 보조금으로 운영해 나가게 되어 있지만 현재 까지는 국가보조 80%만으로 운영해 온 실정이다.(재단보조 20%는 각 시설마다 자랑껏 메꾸어 왔으나 앞으로는 여기에서 생겨나는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처음 시설을 설립할 당시 교단에서 투자한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시설을 경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교단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리라 본다. 그렇게 하여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에 급급해 왔던 영세적 시설의 운영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교단 차원의 관심과 계획이 수립되어 합리적인 복지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복지타운 건설 문제다.

이리지역을 중심으로 소재해 있는 수용시설을 보면 대개 총부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따라서 한 법인에 속해 있으면서도 운영은 각각이며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시설들을 적당한 부지만 조성이 되면 한 곳에 모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본다. 이것은 시설을 대형화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각각 소규모로 알뜰히 운영해 나가되 노인시설, 아동시설, 정신시설, 정박시설 등을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운영해 나가면서 각 시설들의 한계점이나 갈등들을 서로 보완해주고 충족시켜 주자는 것이다.